

기 조 연 설

(조연상 : 한국재정학회장, 목원대학교수)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여러분, 그리고 언론계 및 학계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더불어 지방재정세미나를 주최한 것이 벌써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방재정세미나는 실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관계자들과 이론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 그리고 지방재정활동의 감시자이자 수익과 부담의 주체인 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방재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마를 맞대고 토의하는 자리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지방재정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정력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력격차 문제는 지역간 경제력격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지역경제력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좁혀질 때까지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로 인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지방재정의 위기의 정도도 매우 판이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세와 지방채 등 전통적인 재원배분과 재원조달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기반을 강화하느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효율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고 또한 집행되느냐 하는 것이 이러한 효율화문제와 관련되어 있

습니다. 아직도 전시행정적인 지출이나 수익사업을 빌미로 사실상 조직확대를 도모하려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효율화의 핵심은 지방세 혹은 수익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주민의 편익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전자정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 준수하는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지방재정 효율화와 관련하여 복식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각종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건설해 놓고도 운영면에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엄청난 적자를 계속 감수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식예산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한 지방재정의 과제는 비용부담의 배분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 쓰레기 처리 등 외부불경제 혹은 조세수출문제가 나타나는 사안에 따라 수익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가 괴리됨으로써 그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같은 기구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배분의 이론적 틀이 제시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재정세미나는 이와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재정세미나가 계속 개최되어 지방재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6일

한국재정학회 회장 조 연 상